



여름에도 계속된 공사는 막바지를 맞아서 복도 바닥 타일 공사가 한창이다. 다음주에 교실을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1주일 먼저 출근해서 개학을 준비하는 DIS 교사들 -이들이 자랑스럽다.



마을 거주 학생 가정 방문 해서 다니엘 학교 유치원 학생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주민과 교류하고...

1. 새로운 시작 -2 학기 개강을 앞두고

우기가 한 창이지만,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다니엘 학교도 개학을 준비하면서, 2 학기 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기대를 했던 3 층의 교실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 막바지 공사의 분주함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충분한 상황이다. 몇 주후에 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 - 개강을 하려 한다.

2. 개학준비는 교사들 부터, 그리고 대청소

.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사들은 희망을 포기 하지않고 1 주 먼저 출근을 시작해서 개학준비를 하고 있다. 레슨 플랜을 점검하고, 주말에는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교실과 교정을 청소하는 개학맞이 대청소도 했다. 다니엘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씩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이 그 변화이며, 1 주 먼저 출근하는 것도 그 변화이다. 자랑스런 동역자-DIS 교사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어 본다.

3. 이제 마을주민과도 함께 하는 학교사역 -

다니엘 학교가 위치한 수자뿔 마을주변 나고리면 일대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학생들의 가정형편도 보고, 주민들과 관계도 돈독히하는 프로그램을 몇 주 갖었었다. 호스텔의 아이들만 교육했던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통해서 학교 캠퍼스에 자리한 교회가 부흥되며, 복음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그 접촉점이 학부형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금요일(예배드리는 날임)에 캠퍼스에 자녀와 함께 오는 "희망"을 갖어 본다.

기도제목:

1. 2018년 2 학기 개학을 위해서 - 학생과 교사가 잘 준비된 마음을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2. 8월에 예정된 단기 사역팀 (용화여고 봉사단, 로덱교회 단기팀)을 위해서 - 안전하게 도착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3. 다니엘학교의 3층 증축에 필요한 재정이 끝까지 공급되게 도우소서. - 안전한 공사 진행과 다음 학기에는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4. 사탄의 공격으로 부터 선교사를 보호 해주시고 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5. 새로운 교사, Abraham _이사를 왔다가 다시 치타공으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DIS 3 층 증축 화보 3-7 월 15 일 현재/ 3 층 교실 과 4 층 옥상 마무리



전면 외관은 4 층 건물을 드러냈고, 시멘트 작업 마무리를 했다. 이제 유리창 설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외관 페인트 작업은 우기 지난 10 월 예정임.



도서실의 바닥 타일이 붙여졌고, 유리창과 안전 철망이 붙었다. 이제 곧 개학을 앞 두고 사용이 준비를 다 해간다. 이곳 아이들의 희망을 본다.



도서관 천장 미장 마무리 공사 그리고 복도의 바닥 타일 공사가 한창이다.
개학을 앞두고 서두르는 손길이 바빠진다.



옥상의 안전 벽 설치 마무리 하였고, 4 층 숙소의 외벽 미장 마무리 공사를 마쳤다. 이제 금주에는 전기와 선풍기 팬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생기게 된다.